

에밀레鐘, 그 神體에서 울려 퍼지는 眞理의 소리

강 우 방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에밀레 소리가 이처럼 나의 가슴을 치는 까닭은 무엇일까. 종소리 자체의 우렁차고 투명하고 신비한 리듬 때문일까. 어려서부터 유감하게 들어오던 내력 때문일까, 늘 사무치게 그리던 고향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일까, 이 모두가 다 까닭으로 되리라.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전부는 아니다. 그밖에도 또 무엇인가 있으리라. 그 무엇이랴 형언하기 어려운 신라의 혼, 신라의 리듬, 신라의 울음, 신라의 비밀 같은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리라.

- 金東里의 <고향의 저녁노을>중에서

에밀레鐘이란 전설적인 이름이 聖德大王神鐘이란 정식명칭보다 훨씬 친근감이 있고 神秘感이 있다. 「에밀레」가 어린아이가 어머니라 부르는 애뜻한 소리라 하더라도 그 부드럽고 투명한 언어는 우리 온 민족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온 민족의 노래인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슬플때나 기쁠때나 불리는 것과 같다. 에밀레가 어머니의 옛소리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에밀레라는 音響은 아리랑과 흡사하여 우리 민족의 영원한 마음의 소리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 에밀레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에밀레鐘의 모습을 보지않은 사람이 없고 그 종소리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15여년동안 나는 경주에 살면서 거의 매일 에밀레종을 보았을 것이다. 옛 韓屋을 박물관으로 쓰고 있었을 때는 자주 쳐보기도 했으며 매년 歲暮에 打鐘式을 가졌다.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해를 마지하는 바로 그 시간에.

현재의 박물관으로 이전해 와서도, 정문을 들어서면 바로 앞에 보이는 자리에 鐘閣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들어서자마자 뭔가에 이끌리듯 제일 먼저 종각으로 몰려든다. 4, 5년이래 종에 혹시 손상이 가지 않을까 두려워 打鐘하지 않아 아쉽게도 생생한 종소리를 듣기 어렵게 되었으나, 錄音을 훌륭히 해서 그런대로 아름답고 우렁찬 소리를 들을수 있다. 두시간마다 10번, 10분동안 치던 것을 최근 매시간 녹음을 틀고 있어서 鐘이 바라보이는 관장실에서 하루종일 듣는 나는 이세상에서 가장 행복할지 모르겠다.

더구나 5년에 걸쳐, 정확히 말하여 금년 12월 15일 논문을 완성한 다음, 그 소리가 남다른 것은 이 세상에서 나만이 갖는 孤獨한 幸福이 아닐는지. 요즈음,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문득 일손을 멈추는 버릇이 생겼다. 눈을 감고 온마음으로 들으면서 명상에 잠긴다.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마음을 지워버린다. 때때로 내몸 전체가 鐘이 되어 내가 울리는 듯 착각이 들기도 한다.

내 논문에는 에밀레란 말은 한번도 나오지 않는다. 반드시 聖德大王神鐘, 혹은 神鐘으로 일관하고 있다. 神鐘의 아름다운 모습을 美術史的으로 연구하기 위하여는 우선 가능한 한 客觀的이지 않으면 안된다. 매우 우람하고 아름답다. 그러면 왜 그토록 아름다운가.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하여도 당대시 어떠한 鑄造方法으로 이토록 아름답고 生命力있는 예술품을 만들었는지 不可思議할뿐이다. 아직 아무도 풀어내지 못하고 어느 누

구도 再現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鐘身에 있는 銘文에서 처럼 神과 사람이 힘을 합쳐 만들었기에 神鐘이라 했던가.

왜 이처럼 모습이 되처럼 우뚝하고 윤곽선이 流麗하고 무늬들이 아름답고, 종소리는 雄渾하고 맑고 餘音이 길고 긴가. 여기에는 까닭이 있을 것이다. 십수년이래 나는 石佛寺와 佛國寺에 관한 논문들을 써오면서 거기에는 宏大하고 심오한 華嚴思想이 깃들어있어서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던 터였다. 말하자면 아름다운 예술품에는 반드시 고매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신종을 만든 동기에는 반드시 원대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위대한 思想이 反影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信念이었다.

鐘身에는 앞뒤에 銘文이 있다. 앞 것은 목적·동기·聖德大王的 治績·후원자·鑄造에 참여한 사람들 등을 明記하고 있고, 뒷면에는 앞의 내용을 노래[詞]로 반복하고 있다. 앞면의 명문 첫 구절에는 매우 중요한 形而上學的 동기에 잇대어 정치적 목적이 길게 서술되어 있다.

그 첫구절은 다음과 같이 마치 베토벤 제5교향곡 첫머리처럼 가슴을 울리는 悲壯한 宇宙的 反響을 일으키고 있다.

무릇 지극한 道는 形像의 밖에 있어 보아도 능히 그 근원을 볼 수 없으며
大音은 天地의 사이에 진동하나 들어도 그 울림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隨機說法인 方便假說을 열어 진리에 깊은 이치를 관찰하신 것 처럼
神鐘을 매달아 중생으로 하여금 一乘의 圓音인 종소리를 듣고 깨닫게 하려 합
니다.

이 가운데 나의 가슴을 강하게 친 것이 「一乘의 圓音」이란 말이었다. 一乘이란 말은 흔히 나오는 것이지만 圓音이란 말은 그리 어려운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 낯설었다. 望月辭典등 손닿는 사전들을 찾아보았으나 없었다. 그저 일반적 용어일 따름일가.

그러나 결국 元曉의 『大乘起信論疏』에 圓音이란 단어가 9번이나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元曉는 상당히 자세하게 圓音의 뜻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었다.

진리의 소리가 十方에 두루하여 根機가 성숙한 정도에 따라 들리지 않은 곳
이 없기 때문에 圓音이라 한다.

불교경전들에도 일반적 의미의 圓音으로 쓰였을 뿐이었고, 이때의 「圓」은 단순히 완전한 절대적인 뜻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도 몇몇 경전에는 한번씩 밖에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華嚴經』에 4번 나오며 元曉의 해석과 똑같은 귀절을 찾아낼 수 있었다. 말하자면 元曉는 「一切卽一 一卽一切」라는 화엄경의 陀羅尼에 입각하여 해석하였던 것이다. 一切卽一에서 「一音」이, 一卽一切에 「圓音」의 개념이 생긴 것이다. 天上天下唯我獨尊이 설법한 「一音」이란 절대적 진리를 衆生이 모두 다른 根機에 따라 두루 이해한다는, 즉 一音이 宇宙에 가득하게 된다는 상대적 「圓音」이 생긴 것이다. 즉 바꾸어말하면 如來가 衆生의 根機에 따라 한없는 方便으로 한량없는 음성으로 설법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르러서는 一音과 圓音이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대립을 넘어서서 不二의 관계에 있으니 圓音은 마침내 상대적 개념은 없어지고 절대적 의미를 띠게 된다.

말하자면 에밀레鐘소리는 圓音이 되어 그 소리가 근기가 모두 다른 중생이 제각각 다르게 들으며 평안한 마음을 얻고 어리석음과 탐욕을 여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자비스런 간절한 소망이 첫 구절에 아로새겨 있는 것이다.

중소리를 圓音으로 내려면 그 소리가 아름답고 우렁차서 心琴을 울려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소리를 내기까지 여러번 실패를 거듭했으리라. 그러한 시도는 이미 앞서 만든 上院寺鐘에서도 이루어졌으나 聖德大王神鐘은 모든 면에서 남달랐다. 크기와 아름다운 장엄, 그리고 소리는 비교될 수 없는 정도이다. 그래서 음향과 관계있는, 중국이나 일본에는 전혀없는 音管이라는 독창적인 장치가 창안된 것이다.

이렇게 논문의 틀이 잡히자 3년전 늦가을 雲門寺에서 깊은 밤에 初稿를 썼다. 공해와 소음으로 찌들고 얼룩진 서울에서는 쓸마음이 내키지 않아 찬란한 단풍으로 장엄된 山寺를 찾았던 것이다.

1996년 12월 경주로 오게 되자 神鐘을 새로이 살피고 그러는 사이에 여러 가지 잡히는 것이 있어 논문을 다시 써나가기 시작했다.

아침일찍 7시 반쯤 약 30분간 생기있게 빛나는 눈부신 햇살에 들어난 神鐘의 雄姿와 生命力으로 가득찬 무늬는 나를 황홀케 하였다. 저녁 늦게 4시쯤 그 반대편에 부드럽게 깃드는 붉은 기운이 도는 햇살에는 생생한 맛은 없으나 비장한 느낌이 들었다. 仙桃山頂으로 기우는 햇빛이 종 윗부분까지 스며들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해가 마지막 희미한 빛을 보내고는 山을 넘어가자 햇빛의 기운이 얼음녹듯 살아져버려 내 마음마저 꺼져버리는 느낌이었다. 역시 기우는 해는 힘이 없어서 새벽의 햇살이 얼마나 밝고 강하고 생생한지 새삼 절감하였다. 새벽 햇살에는 모든 사물이 生命力으로 충만하였고 저녁 햇살에는 모든 사물이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었다. 그런 시시각각 변화하는 햇살에 따라 종의 색이 변하였고 아름다운 무늬들이 다른 強度로 다른 형태로 보였다. 종의 모습은 시시각각 다를 뿐 아니라 계절따라 다르게 보였다. 그래서 늘 새로운 모습이었다.

下帶, 上帶, 乳廓, 撞座 등의 연꽃과 寶相華文 飛天은 아름답고, 풍부한 量感의 무늬들은 힘차면서 정교하였다.

그러나 龍고리는 묵중하고 두터운 철걸이로 가리워진 부분이 많고 사진을 찍어도 좋하였다. 20여년전 새 박물관으로 이사올 때도 사진을 찍어 놓치 않아 龍鈕의 온모습을 보이는 좋은 사진이 없다. 나에게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작년 여름 종 무게를 잴 때 종을 내려 놓았으므로 마음껏 살피고 만지며 조사하였다.

보면 볼수록 감탄을 자아냈다. 이렇게 힘차고 아름답고 정교하고 박력있는 龍은 세계에 견줄 것이 없다. 그 龍은 거대한 종을 움켜쥐었고, 종소리는 진리의 소리인 동시에 용의 울음소리 [龍吟]였다.

이렇게 鐘身에 장엄된 것들을 나는 彫刻的 觀點에서 살펴나갔다. 종래에는 금속공예 연구가들은 이것들을 단지 무늬로만 보아왔던 것이다. 동시에 나는 圓音을 더 추적하였다. 圓音이란 말은 元曉이후에는 쓰는 사람이 없었는데 華嚴宗 第4祖 澄觀의 『懸談』(華嚴經註譯書)에서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다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澄觀이 元曉의 『大乘起信論疏』를 공부한 사실도 알았다. 그래서 澄觀의 논지가 元曉의 것과 똑같았던 것이다.

지난해 나는 다시 雲門寺를 찾았다. 그때 새벽에 낭송하는 새벽 「鐘頌」을 듣고 깜짝 놀랐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승려들은 매일 새벽종을 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이 종소리 法界에 두루하여... 모든 중생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지이다. 毘盧遮那 教主이신 華藏世界의 부처님께서 펴신 一乘圓教인 『華嚴經』에 귀의합니다. 「사람이 모든 부처님 온전히 알고자 할진대 마땅히 法界의 性品을 觀하라, 一切가 오직 마음으로 지은 것이니라」

一乘圓教가 바로 에밀레鐘의 一乘圓音이 아닌가. 그리고 華嚴經이 바로 圓音인 것이 더욱 분명하지 않은가.

大乘佛敎가 일어나면서 『華嚴經』이 나왔고, 저 馬鳴이 『大乘起信論』을 써서 보살의 이름을 얻었고, 元曉가 그 주석서인 疏를 지었고, 다시 중국의 징관이 화엄경의 주석서를 지었는데, 오직 그 맥락 가운데서만 圓音이 자세히 풀이되고 있었다. 그리고 鐘頌에 그 모두가 합축되어 있었다. 「一切唯心造」란 『華嚴經』의 一句이고 더구나 元曉가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一切唯心造」가 아닌가.

아, 나는 에밀레鐘소리가 바로 元曉의 獅子喉란 걸 알게 되었다. 圓音에 관한 한 元曉와 관계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니 그 진리의 소리는 바로 화엄의 소리요, 원효의 소리다.

나의 논문은 끝났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치는 자리인 撞座를 주목했다. 그것은 겹연꽃으로 되어있는데 꽃잎마다 보상화 장식이 있었다. 거리를 두고 보면 한덩어리 뭉게구름같다. 그 연꽃을 치면 아름답고 웅장한 소리가 이 사바세계에 널리 울려 퍼진다. 실제로 神鐘을 치면 慶州盆地에 소리가 들리지 않은 곳이 없다.

나는 이 연꽃당좌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왜 치는 자리를 그저 동그랗게 표시만 하면 되지 왜 연꽃이란 말인가.

연꽃은, 인도에서부터 모든 萬物이 生成되는 創造의 母胎로 여겨왔다. 그래서 불교미술을 살펴보면 연꽃에서 모든 무늬가 나오며, 결국엔 부처도, 보살도, 비천도 연꽃에서 탄생한다. 그런데 중국에는 인도의 연꽃과는 달리 「氣」에서 모든 것이 生成한다. 그래서 중국미술에는 그 氣를 구름모양으로 나타내어 「雲氣」라고 한다. 鐘身의 龍에 보이는 것도 바로 이 雲氣이다. 雲氣에서 龍이 탄생되고 다시 그 龍이 雲氣를 내뿜는다.

인도의 연꽃과 중국의 雲氣가 같은 생명의 母胎이므로 서로 융합하여 飛蓮이 성립한다. 그리하여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구름처럼 나르는 연꽃에서 부처와 보살과 천인이 탄생되는 것이다. 神鐘의 天人도 구름처럼 나타난 연꽃보상화문에서 탄생되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연꽃당좌도 한덩어리 뭉게구름으로 보이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바로 그러한 연꽃당좌를 치므로써 그 연꽃에서 화엄경의 소리, 元曉의 소리, 즉 일승의 圓音이 발생하여 온 누리에 울려 퍼지는 것이다. 神鐘이 그러한 진리의 소리를 냄으로 神鐘은 그 순간 法身 비로자나가 된다. 바로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명문에는 이 神鐘을 일러, 「天鐘」「珍器」「神體」「神器」 등으로도 불렀던 것이다.

이에 이르러, 매시간 내가 듣는 에밀레종소리가 남다르지 않을 수 있는가.

이 기쁨을 모두에게 나누기 위하여 지난달 한국미술사학회에서 발표회를 가졌다. 나는 모든 슬라이드를 보여주었고 내 생각의 모든 걸 말했다. 세상에 비로소 에밀레종의 참모습이 들어났다고 믿는다.

논문에서는 聖德大王神鐘이란 명칭만 썼는데, 이 글에서는 에밀레를 주로 썼다. 神鐘도 좋지만, 나는 에밀레란 음향이 더 가슴에 와 닿는다. 이 종에 성덕대왕이란 이름을 붙여 한정시키기에는 아깝다. 이 종은 민족의 종이고 민족의 혼이 배어 있기에 온 민족이 에밀레라고 부르는 데로 따르기로 하자.

「一切卽一 一卽一切」라는 華嚴의 원리인 緣起思想이 그대로 조형화된 石佛寺와 佛國寺에 대한 논문을 20년 가까이 써온 나로써는 환희에 깊이 빠진다. 佛身을 조각으로 나타낸 石佛寺, 佛土를 건축으로 나타낸 佛國寺, 佛音を 鐘소리로 낸 에밀레종, 이 세가지를 統一新羅時代의 三寶라해도 좋을 것이다.

여러번 수정 끝에 일단 논문이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한 후 삼개월 동안 무려 스무번도 더 고쳤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밤낮 가리지 않고 혼신을 기우려 한자 한자 재검토하며 완벽한 논문을 만들려고 한 까닭은, 예술적으로나 음향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완벽하게 나타낸 에밀레鐘에 보답하려는 마음에서였다. 그걸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가룩한 마음과 정성에 보답하려는 마음에서였다.

1998. 12. 18. 강우방